전호근 <장자, 그 신랄한 패러디의 세계>

제 6강 사람들 사이에 서다(人間世) Ⅰ: 장자의 존신

◆ 1교시 세상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 장자의 존신

장자 네 번째 시간이죠. 주제는 네 번째 편인 장자의 <인간세> 편입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 사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장자의 인간세 편입니다. **인간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맹자 같은 경우는 주로 存心이 문제가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맹자는 방심은 안 되고 放心이란 마음을 놓은 거죠. 마음을 붙잡는 것이 존심입니다. 이것이 맹자 식의 수양이라면, 장자는 존심이 아니라 **존신(存身)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일종의 처세술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왕부지라는 학자가 있죠. 왕부지는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활동한 철학자인 왕부지는 한족이며, 명나라 유신이며, 청나라에 출사를 당연히 못합니다. 자기의 조국인 명나라가 망하고, 이민족인 청나라가 지배하는 세상에 나와서 벼슬을 못합니다. 즉, 명나라 유신이라 출사할 처지가 안 되고, 그러나 단독저술로는 최고로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입니다. 왕부지에 대한 다른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잠시 접어두고. 왕부지가 장자 주석을 남겼습니다. 이건은 뛰어난 주석입니다. 그중에서 인간세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自全. **나를 온전하게 보전하게 함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장자가 추구하는 묘술이다.** 自全이 전인하는 묘술. 뛰어난 기술. 그것이 장자의 인간세 속에 있기에 이건은 군자가 취할 만하다. 왕부지는 철저한 유가입니다. 왕부지와 동시에 활동한 학자로 방이지가 있는데 방이지 저술 양은 사백만자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버금하는 사람은 다산 정약용 정도가 되죠. 방이지는 명나라의 유신이고 역시 청나라에 출사하지 못하죠. 이 당시 고염무, 황종희 학자가 있는데 자기는 정치에 안 나갔지만 자기의 아들인 황백가는 청나라에 출사했어요. 고염무도 자기가 직접 출사는 안했지만 청나라의 지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방이지는 끝까지 안 나가고 명나라의 유신 도리를 지키지만 괴로워서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이지가 왕부지를 부르지만 왕부지는 안 갑니다. **철저한 왕부지가 장자의 인간세에 나오는 存身의 처세를 단순히 처세술로 보지 않고 自全이 전인하는 뛰어난 기술로 보았습니다.** 自全인 전인이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일 요즘 win-win이라는 전략을 얘기하는데. 이런 전략보다는 나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남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말이 아니고 맹자에 보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이런 말이 있죠. 이놈의 해가 언제 사라지나? 해가 사라지면 나도 죽지만 임금도 죽으니까 차라리 너 죽고 나죽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체로 통치자들이 말하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인데 왕부지는 장자를 나도

www.artnstudy.com

살고 사람도 사는 그런 기술을 발휘한 것으로 대단히 높이 평가했고 군자가 취할 만 한 것이 인간세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왕부지 같은 경우 권모술수나 가벼운 처세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왕부지가 장자를 읽으면서 저것은 군사가 취할 만한 훌륭한 기술로 선택적이지만 인정했다는 점을 염두 해 두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세 편의 첫 번째 이야기는 공자와 공자의 제자 안회가 나옵니다. 이 안회가 위나라 가려고 하는데 위나라는 임금이 폭군이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어 제가 가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공자가 안회를 말리는 얘기입니다. 이는 논어에 나오는 태도와 주로 다릅니다. 논어에는 공자가 나서죠. 천하를 구제하기 위해 나서는 건데… 근데 다른 은자들이 공자를 비웃으면서 천하가 모두 다 어지러운 상황인데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천하가 혼란하다. 공자가 말하길 천하가 혼란하니깐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 천하가 혼란하지 않으면 내 굳이 바로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공자는 끝까지 인간세상 속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논어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조수불가여동군 새와 짐승과 함께 살 수 없으니 오비사인지도여이수여. 내가 사람의 무리가 아니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同群은 鳥獸와 함께 살 수 없다.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群은 논어에는 君子 群而. 군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만 不黨. 편 가르지는 않는다. 이 때 黨은 부당으로 좋은 의미로 쓰이기로 하지만 여기서는 악당처럼 부정적의미로 쓰이고 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행위이며 黨은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치우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오른쪽에 있는 것이 羊이죠. 양고기를 어떻게 분배할 지를 손에 막대기를 잡고 입으로 지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배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群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오히려 은자를 비판합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모습인데 공자는 끝까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 세상 속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공자입니다.** 초나라 접여가 공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논어와 장자 인간세 편 8장(더 자세하게)에 나와 있습니다.

공자의 그런 모습과 달리 인간세 편에는 안회가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려고 위나라로 가서 폭정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공자는 오히려 말리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상적인 경우이죠. 선생이 아닌 제자가 나서고 그리고 선생이 제자를 말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장자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논어와는 상반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보다는 장자가 안회와 공자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허구로 만든 것. 실제의 공자나 안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세상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 대변자가 공자와 안회라는 점을 보면, 장자가 유가학자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장태염 같은 학자는 장자가 안회의 제자라고 봅니다. 유가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장자를 봅니다. 공자의 이대지맥이 맹자와 장자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는 이쪽 유가계열 주장은 이미 당나라 한유로부터 나왔다. 이런 부분을 잘 읽어보면 장자가 공자나 안회 같은 유가 대단히 호의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자

www.artnstudy.com

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공자를 통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와 유가학자의 관계를 대립적인 측면만이 아닌 다른 시각을 인간세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통 소개되는 것은 잡편에 나오는, 도척편 같은 데에 보면, 도척이 바로 유하계의 동생이에요. 유하계는 바로 맹자에 나오는 유하혜에요. 혜가 시호고 계가 이름이에요. 유하계가 공자와 절친한 친구사이고 유하계의 동생이 도척이에요. 공자가 도척을 찾아갔다가 망신당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부편에 보면 비굴한 모습으로 공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 중심으로 장자와 공자는 관계를 설정해보면 장자가 공자를 깔아뭉개는 식으로 되어있어요. 실제로 이건 잡편이고 본래 장자 외편이라고 하면 장자가 직접 저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외편이라고 하면 장자 후학들이 저술한 것으로 인정되고 잡편은 후세의 만들어진 여러 작품 중 장자의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을 모아둔 것으로 일관성 없는 것을 잡편이라고 호칭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공자와 장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을 뛰어난 점을 이야기 할 때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올리는 상투적인 방법을 쓸 때 좀 더 대중적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때 유행처럼 번진 거 같습니다. 도척이 공자를 보고 오히려 너야 말로 큰 도적이다 라고 즉, 공자를 도둑의 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허구 중에서도 장자가 직접 저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자와 유가 학자의 관계를 제대로 보여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학자들의 세계관 - 인간 세상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스케일 면에서는 장자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은 1페이지에 제가 인간세편을 정리하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은 **'사람들 사이에 서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세편의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세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주석가들.. 곽상.. 조조의 위나라 다음에 결국 사마씨가 위나라를 접수하죠. 그래서 진나라를 세우죠. 삼국시대 진나라의 주석가 곽상.. 왕부지 역시 명말청초에.. 엄청난 학자죠. 왕부지 등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인간세를 인간세상으로 풀이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곽상은 사람들과 무리지어 사람은 사람을 떠나 수 없다. 곽상은 장자의 주석을 남겨서 신도가(新道家) 라고 하죠.** 이것은 道家다. 곽상의 주석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나 유가적입니다. 오히려 맹자를 가지고 장자를 풀이하고요. 장자를 오히려 공자 아랫단계의 인물로 표현합니다. 요 부분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을 무리지어 사는 사람은 사람을 떠날 수 없다는 이런 표현은 논어에 나오는 표현을 일부 활용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일이란 시대마다 마땅함이 다르니 오직 무심이 스스로 서지 않는 자만이 변화가 나가는 바에 따라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 곽상의 견해인데요. 무심한 사

www.artnstudy.com

람, 무심한 태도, 사심이 없고, 자신의 견해를 쓰지 않는 자,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내세우지 않는 자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생겨날 수 있다.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석을 남겼고요.

그 다음으로 임희일을 보죠. 앞에서는 양생을 말했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해치지 않고 온전하게 살수 있는가? 그냥 오래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간 세상을 말하고 있다. 이미 이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인간사를 끊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다만 사람들이 잘 지내길 바랄 뿐이다. 임희일(林希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간은 인간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니까 **사회적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유가의 특징**입니다.
서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동양에서는 인간의 사회성을 적절하게 강조한 사람은 순자죠. 순자는 인간의 힘(力)은 不若牛 力은 소만 못하고, 달리기 走는 不若馬, 말만 못해요. 그런데 牛馬爲用. 소와 말이 쓰이게 된다. 인간에 의해서 부림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소와 말이 힘이 세고 달리기가 더 빠르지만 사람은 무리지어 살 줄 알고 그리고 소와 말 또는 조수는 不能群. 群이 안 되요. 왜 무리지어 살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건 군집의 성격일 뿐 실제로 분배를 해결해 가면서 사회적 조직을 갖추는 것은 아니죠. 차이가 있죠.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사회성을 더욱 강조한 말인데 임희일이 그런 식으로 지적하는 이유가 임희일은 성리학자였거든요. 그리고 주자학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자학, 송학의 기준은, 극복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불교**입니다.

불교는 워낙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요즘 불교 극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송나라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귀족사회를 대변하는 불교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하면서 송학이나 주자학 성리학이 나온 거예요. 불교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 출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 기준으로는 구복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인거 같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하는 행위를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이상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나온 것이 성리학 주자학 송학입니다. 이 쪽에서는 항상 천하 국가를 얘기해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늘 관심이가 있죠. 이제 잘못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개인의 생로병사의 문제라든지, 해탈 추구하려면 어쨌든 천하국가가 있어야 탁발도 된다는 원리가… 성리학자들의 논리이다. 어쨌든 일상이 튼튼해야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도 가능하지, 일상이 와해 상태에서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는 성리학자들의 사상적 착실성,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세간을 벗어나지 않고 세간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이게 유가 학자의 태도라는 거죠. 임희일이 성리학자의 입장이니까. 임희일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임희일의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www.artnstudy.com

그 다음 왕부지 얘기입니다. 난세를 넘어 장자가 살았던 시대와 맹자 살았던 시대는 난세입니다. 맹자와 장자가 같은 시대. 근데 방법이 달랐죠. “난세를 넘어서 스스로를 보존하고 남도 보존하는 묘술을 추구한 것이니 군자가 깊이 취할 점이 있다.” 군자가 본보기를 취할 점이 있다. 대단히 높이 평가했죠. 근데 이제 **맹자가 보기에는 세상이 바꾸어야 할 변혁의 대상이고, 장자가 보기에 세상이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태롭다.** 또 위험하기까지 하다. 물론 인간세 편에서 장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동시대의 맹자가. 맹자가 격렬하죠. 하는 얘기가 푸줏간에는 살찐 고기가 가득하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한데도 백성의 얼굴에는 굶주린 기색이 짙고 들에는 굶은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는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솔수식인의 사회이다. 말은 튼튼하게 살쪘는데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 이는 말이 사람이 잡아먹는 거다. 토지를 빼앗기 위해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고 성을 빼앗기 위해 전쟁으로 몰아 사람을 죽이니 이것은 토지를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표현도 맹자에 나와요. 그런 식으로 격렬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장자는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격렬하게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케일 면에서 맹자가 스케일이 더 큰 고민을 제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자와 맹자 - 시대비판에 있어서의 입장 차이

근데 다른 문제가 제기 되어 있죠. 맹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맹자는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로서, 반대하는 논리도 대단히 과격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善戰者 服上刑. 전쟁을 잘하는 자는 최고의 형벌에 꼭 처해야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임금에 대해서도 한 놈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도 임금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당나라 태종이 그것을 읽다가 뭐 이런 자가 다 있느냐하고 눈이 뒤집어지죠. 이건 맹자 스타일이고, 장자는 전쟁 반대를 세우지 않고 그냥 낮잠이나 잡니다. 소요유편에 나왔죠. 전쟁은 니들이나 해라. 나는 소요하면서 잠시 동안 寢臥其下. 이 其下는 나무아래죠. 나무아래서 잠이나 자겠다고 전쟁에 반대합니다. 스타일이 다르죠. 맹자는 정책기반자와 가까운 지위에 있었고 장자는 정책기반자와 거리가 먼 곳에서 있었죠. 그나마 혜시라는 벗이 있어서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 것을 기대는 할 수는 있었는데 결국 장자가 우언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우언을 하는 이유가 즉 왜 우언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직접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기에 다른 사람을 말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빌리는 사람 중에 빈번한 사람이 공자에요. 공자가 얘기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 말이에요. 사실은 공자 이후 철학자가 대부분 장자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서양에도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난데없이 그런 얘기하면 힘들기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재해석하고, 공자를 재해석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직접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경청한다면

www.artnstudy.com

그렇게 하겠죠. 굳이 공자를 거론하고 맹자를 거론하겠습니까? 장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때론 안회도 빌리고, 때론 공자를 비판하는 사람의 말도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소극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맹자보다는 한걸음 물러선 태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 2교시 장자의 존신 - ‘쓸모없음’, ‘무심’

▲ 장자의 인간세편 - 괴외이야기

그러나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한순간을 모면하려는 단순한 처세술 따위가 아니다. 장자는 이 편에서 안회와 공자 그리고 습공자와 공자. 습공은 역시 논어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습공은 습이라는 고을에 원님입니다. 원래 통치자인데 공자와 몇 차례 대화를 합니다. 그 내용이 장자에 재구성되어 들어 있고요. 안회와 공자가 나올 때에 안회가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깐 공자가 말리는 것. 습공자가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 공자를 찾아와서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안합과 거백옥(蘧伯玉). 안합이 위나라의 세자부가 되겠죠. 거백옥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괴외는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유명한, 괴외라고 글자가 꽤 복잡한, 아버지가 위나라 영공입니다. 영공의 아내는 남자(南子)입니다. 南子라는 인물을 발음이 남자이지만 실제로 여자인거죠. 이 南子가 괴외의 어머니입니다. 이 남자가 음행이 있었다. 즉 송조와 음란한 행위, 썸싱 있었다. 괴외가 송나라에 가는데 아이들의 노래 가사가 송조와 南子의 썸싱 내용이었다. 그래서 괴외가 수치스러워 자기의 어머니인 南子를 죽이려고 하는데, 괴외가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곳에 자기어머니가 아니다 라는 말이 없어요. 결국 南子는 괴외의 친어미니죠. 南子를 죽이려고 했는데 괴외가 이제 부하를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3번 돌아보면 죽여라고 말했는데 그 괴외의 부하가 못 죽여요 그러다가 영공에게 발각되어 괴외가 도망쳤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괴외가 임금이 되려고 하니까, 괴외의 아들 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괴외와 輒의 이 부자가 다 어렵습니다. 임금의 글자는 다 어렵습니다. 안 쓰는 글자를 하니까. 조선시대의 왕들 이름도 부린 적도 없지만 아무튼 다 어렵습니다. 괴외의 아들 輒은 영공의 손자이자 괴외의 아들인데. 南子가 나중에 輒을 임금으로 삼아요. 괴외가 들어오려고 하니깐 輒이 자기아버지를 거부를 합니다. 괴외는 자기 엄마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자기아들이 또 자기 아버지를 거절하는 꼴이 되었으니 공자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www.artnstudy.com

논어 자로편에 보편 輒이 임금이 되어 공자를 불립니다. 자로가 輒 밑에 있었습니다. 자로가 묻죠. 선생님, 선생님께서 위나라 오시면 임금이 선생님이 오시면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명분부터 바로 잡을 것이라고 공자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로가 그딴 거 바로 잡아서 무엇을 할 거 입니까? 명군이란 군군신신부부자자 있거든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공자가 볼 때 위나라는 이게 엉망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자가 위나라에서 벼슬을 못하죠. 왜냐하면 통치자를 바로 잡으려고 했으니깐 통치자에게 버림 받죠. 어쨌든 그 당시 통치자에게 버림받는 대시에 후세 지식인에게 존경을 받으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죠. 근데 이상합니다. 그 당시 권력자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건 너무 시야가 좁은 거 같아요. 요즘도 그런 거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잘 못 보이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의 배경이 있고요. 이런 사람의 태자부가 되니까 이 사람은 웬만하면 자기 엄마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쉽게 죽이는 거죠. 당시 그 시대를 보면 많아요. 진나라 獻公의 옆에 굉장히 미인인 여희. 원래 니희라고 읽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다 여희라고 읽으니 저도 여희라고 읽습니다. 헌공이 여희의 꼬임에 빠져 신생을 죽이는데요. 태자였던 申生이 가져다 준 술과 고기에 여희가 독을 넣어요. 신생이 독을 든 것을 임금에게 받쳤다. (친모는 아닌) 어머니에게 받쳤다고 모함하는데 진 헌공이 신생이 준 고기와 술에 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단 개에게 고기를 줍니다. 술을 이젠 땅에 부었더니 부글부글 끓고 연기도 나고 즉 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小臣을 불러 술과 고기를 먹여보니 죽고 그래요. 소신도 사람인데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상태에서도 실험삼아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냥 아~ 하면 죽는 거예요.

한비자 같은 경우에도 세난(說難) 편에 나오죠. 세는 설로 읽지 않고 세로 읽죠. 예를 들어 지식인이 외교 전략가 책사나 여러 가지 모신이 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각국의 제후들을 설득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說로 읽죠. 원래 세득이라 읽어야 하는데 모두 설득이라고 읽으니 설득이라고 하구요. 임금을 달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들어 한비자 제후를 설득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제후에게 仁義를 이야기한다. 맹제가 인의가 얘기를 하죠. 근데 제후들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다 밀쳐 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익을 가지고 설득해도 죽어요. **이익으로 제후를 설득하면 설득하는 자가 제후들 자기를 이익이나 밝히는 자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의나 이익 둘 다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의를 내세우고 속으로 실리를 만족시키도록 유세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타당한데도 결국 한비자 유세에 실패해서 죽죠.

www.artnstudy.com

한비자가 말더듬이지만 대신 저술이 뛰어나죠. 진시황이 한비자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죠. 이사(李斯)와 한비자 함께 동문수학이구요. 한나라에서 한비자를 진나라로 빼앗아오죠. 결국 이사가 한비자의 능력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죽이죠. 진나라 시황제 만나보기도 못하고 유세의 기술을 충분히 터득 했지만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만큼 그 아래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맹자 스타일로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강심장이 아니면 하기 힘든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 결국에 이제 안합과 거백옥의 얘기를 통해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나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삶을 보존하는 방법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리어 당시 지식인들의 적실하고 진지한 물음을 자신의 방식대로 풀어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요. 등장인물인 공자, 南伯子綦, 支離疏, 接輿 등은 인간 세상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또 제1장에서는 세상을 구제하려고 나서는 안회를 말리면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심재를 말하는 공자가 8장에서 접여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것으로 나오는 데,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2편의 전체주장은 1장에 무심, 심재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 9장에는 무용지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심재에서 시작한 무심의 모티브는 4장 장석과 상수리나무. 한번 읽어 보기로 하구요. 그리고 5장 남백자기와 커다란 나무의 이야기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나며, 7장 완전한 삶의 절정을 이루다가 9장의 무용지용으로 전개된다. 무용지용은 여기서 잠시 보죠.

▲ 장자의 무용지용

제9장의 내용은 이 편 전체를 아우르는 장자의 해설이라는 점에서 거듭 음미해 볼 만 하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재목이 되니까요. 山木自寇 재목 때문에 기름등잔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膏火自煎. 기름등잔불 자체가 쓰임이 되니까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계피는 먹을 수 있기에 사람들이 베어가며 계피는 월계수, 옻나무는 쓸모가 있기에 사람들이 가른다. 漆可用 故割之 이 구절은 여러 차례 고친 거예요. 割之는 원래 잘라간다고 했는데 근데 옻나무를 옻을 채취할 때 보니까 옻나무에 칼질을 해서 수액을 받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베어서 간다가 아니고 가른다고하는데 일단 가른다 라고 보았는데 가른다는 거도 이게 가른다고 생각을 해서 이랬다저랬다 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원래 割은 분할하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옻나무를 분할하는 것은 아니죠. 분할이 아니라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적당한 용어를 찾아보아야하는데요. 옻나무를 채취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살목재취라고 해서 나무를 잘라서 하는 즉 나무가 죽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옻나무를 죽이지 않고 6월 달부터 9월 달부터 한참 성장할 때 이렇게 칼질을 해서 채취하는 그런 방식이 나오더라고요. 적당한 용어를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옻나무를 쓸모가 있기 때문에 베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으면 쓸

www.artnstudy.com

모 있는 것을 알고 쓸모없음의 쓸모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쓸모없게 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그런 내용을 한번 첫째 이야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 나가려는 안회를 공자가 말립니다. 名과 知를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 많잖아요. 애국선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명예를 위해 바친 거죠. 장자가 보기에 그거도 문제가 있는 삶을 태도다. 名과 知는 흉기라고 말해요. 名知凶器. 二者凶器. 이 두 가지는 흉기라 非所以盡行. 끝까지 다 실천할 도리가 아니다. 名과 知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추구할만한 가치가 아니다. 이것은 흉기고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다. 대단히 부정으로 보는 거죠.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도 안 된다는 거죠. 爲知己者. 死.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멋있는 말인데 장자가 보기에 알아주는 것은 좋은 데 왜 목숨을 바쳐.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흉기를 얻으려고 목숨으로 받치는 격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삶을 태도라고 장자가 보는 거죠. 장자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 것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게 첫 번째 문단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안회가 제시하는 것은 의사의 집안에는 병든 사람이 많다. 당연히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사집으로 많이 가겠죠. 그것처럼 **훌륭한 현인은 어지러운 나라로 가야 된다.** 그게 훌륭한 사람의 역할로 보는 거죠. 즉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현인은 국가의 혼란상을 종식시키는 것이 현인의 역할이다.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것과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안회의 주장이고 어쨌든 공자가 볼 때 장자의 이야기지만.. 안회야 네가 그렇게 해도 형벌을 당할 뿐이다 라고 말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번에 보며 두 번째 문단요. 관용봉과 비간의 죽음입니다. 관용봉이 걸왕의 잘못을 간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주왕은 比干을 죽이고, 즉 비간이 폭정을 간하니까. 주왕이 말하길 내가 들으니 성인의 심장엔 구멍이 일곱 개 뚫렸다는데 한번 보자면서 심장을 해부해서 죽입니다. 걸왕이 말하기 나는 심장만 갈랐는데 죽었다고 말한 것이죠. 장자는 말하기 다 명예를 추구하다고 죽은 것이라고 말함. 그 내용 보면요. 그 **임금이 그들이 수양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도리어 그들을 죽였다고 되어있어요.** 너 그렇게 잘났으면 심장에 7개의 구멍이 있겠지 라고 빌미를 제공해서 죽인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구요. 세 번째 문단을 표시를 잘못했네요. 세 번째 문단이 2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이 세 번째 문단이고, 1-3이 1-4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이구요. 이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이 1-3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심재를 이야기 하는 거고요.

www.artnstudy.com